

사회

광주시교육감은 2명?

장휘국 당선자측 “인사·예산 사전 조율하자” 교육청 “임기 5개월 남아... 수용 어렵다” 난색

광주시교육청이 6·2 교육감 선거의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현 안순일 시 교육감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장휘국 당선자측이 인사와 예산 편성 등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시교육청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명했지만, 장 당선자의 눈치보기에 나선 일부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예산 사전 조율을 요청하는 등 당선자의 권한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해 오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가 아닌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 당선자는 지난 7일 시 교육청을 방문해 각종 교육 정책 수립 시 자신의 선거 공약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 담당 간부는 이

날 장 당선자에게 “현 시 교육감의 임기가 5개월이나 남아있고, 교과부와 의 정책 조율 등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는 “선거 때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예산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제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당선자는 지난 6일 보도자료로 통해 “7월과 9월로 예정된 교육청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8월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안순일 교육감이 자신과 사전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교육감은 “최근 간부 회의를 통해 장 당선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당부했다”면서 “다만 장 당선자가 상호 협의 없이 인사 등을 자신과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한 것은 당선자의 권한을 벗어난 ‘월

권행위’라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안 교육감과 장 당선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발생하면서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 정책 수립에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현 교육감의 임기가 5개월이나 남아있지만, 장 당선자의 의중도 무시할 수 없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답답하다”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교육감을 두 분이나 모시게 됐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따라 지난 2006년 11월 7일 취임한 안 교육감의 4년 임기 마감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안 교육감이 중도 사퇴하더라도 11월 7일 이전에는 장 당선자의 취임이 불가능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학습 동아리 페스티벌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 중앙광장에서 동구청과 맥지청소년사회 교육원(이사장·노성대) 주최로 열린 평생학습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씨밀레’ 회원들이 한국 전통 춤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짬통 시내버스... 열받은 시민들

30도 넘는 폭염에 에어컨 가동 안해 곳곳 실랑이

지난 6일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1.2도까지 치솟는 등 최근 여름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에어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날씨로 접어들어도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들이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가동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준공영제가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승객 최모(45)씨는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시내버스가

왜 승객들에게 서비스는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해도 운전원들이 잠깐 틀다가 말거나 아예 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업체들은 매년 이맘때 실무자회의의 안건으로 ‘에어컨 가동 시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 30도 이상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업체 실무자들이 시기를 자율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최대한 가동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재정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버스마다 매일 연료를 얼마나 썼는지를 점검

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며 “올해 실무자회의는 9일로 예정돼 있어 이때부터 에어컨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 버스마다 에어컨 가동에 의해 연료비가 1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전원 정모(52)씨는 “에어컨을 틀고 싶지만 회사에서 연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지난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09년 297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042) 김중두



해남서 육군 사병 자살

8일 새벽 1시25분께 해남군 해남읍 백아리 육군 31사단 소속 윤모(21) 이병이 생활관 외부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동료 병사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윤 이병의 몸에 외상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나 PD” 여성들 농락한 사이버 기자

○~순경철은 8일 자신을 ‘해의 유학파 PD’라고 속여

부녀자를 유혹하고 삼상적으로 돈을 뜯어낸 S주간지 기자 김모(4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성들과 상관을 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사업비 명목으로 5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을 받아왔던 혐의.

○최종 학력이 중졸인 김씨는 자신이 일본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과일, 아나운서,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 가진 지역 방송국 PD라고 속여 여성들을 농락해왔다는 것.

○김씨는 유부녀 A(53)씨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속여 가정을 파탄내고, B(44)씨와 실제 혼인신고까지 해가며 사기 행각을 일삼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들킨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교육의원 낙선 후보들 “로또선거” 반발

‘로또선거’란 지지를 받은 6월 교육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당국의 선거홍보 부실 등을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의원 당선자 82명 중 94%(77명)가 한나라당(1번)과 민주당(2번)을 연상케하는 1~2번째 순번을 뽑은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2번째를 뽑은 총 9명의 후보 중 전남에서만 2명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선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다른 후보 10여 명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교육의원 낙선자는 “정부는 교육이 백년지계라고만 떠들었지 정작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영장

광주지검, 인사비리 수사 확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8일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A씨가 건넨 3000만원을 서구청 고위 간부 B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청 간부 B씨가 구청 인사 과정에서 승진 희망자와 전 청장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뇌물 규모와 청탁 공무원 수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지 5개월 뒤인 지난 1월 서구청 정기 인사에서 실제 5급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사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암환자 무등산서 투신

지난 7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장~총장사 방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이모(59)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이씨는 8m 높이의 절벽 아래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20여분 뒤인 새벽 1시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말기암 환자인 이씨가 신병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승합차를 몰고 도로 옆 절벽으로 돌진하려다 실패하자 차에서 내려 뛰어내린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천안함 수색 중 침몰 9명 사망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 안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사고 고로 침몰한 금양 98호 실종·사망선원 9명 전원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인정이 부결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 중구가 신청한 금양 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심의한 결과 의사자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금양 98호의 침몰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태상황이 있는지 여부 ▲타인에 대해 직접적 또는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모총장 선원의 유족들이 참석,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서운한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광뉴스

“남한이 북한 선제공격” 인터넷 유포 고교생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고등학생 유모(16)군을 전기통신기법법 위반 혐의로 불찰아 조사 중이다.

유군은 지난달 26일 밤 11시20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 컴퓨터로 “남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 만 17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고 휴교령이 내려진다” 등의 쪽지를 인터넷 네이트 메신저로 친구 15명에게 보낸 혐의다. /양수현기자 yang@

- 2011학년도 -

대학편입

이름방학을

잡아라! 개강 7월 1일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 대부분 - 이름방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p>편입영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편입의 절대적인 평가요소인 편입영어 이론과정반 - 기출문제 사근사근 실적과정반 - 유망한 문제풀이 	<p>편입수학</p> <p>무궁해 편입합격의 열쇠 = 따라본 이론/문제풀이 = 편입수학의 생명선</p> <p>이/저본과함께 원천정리</p>	<p>TEPS대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과 영어 2개 영역의 대학편입 편입영어 핵심 TEPS에 대해 최신자료 전문대학출시문제와 모의고사 119개 기관과별 개강
---	---	--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o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문의) 222-8088, 227-8088